

톡톡(talk talk) 튀는 이야기(talk)가 가득한 똑똑한 소식지! 우측 상단 코드를 '보이스아이' 앱으로 스캔하면 시각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도 소식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원구청 앞 해바라기 단지

02 특집

안산으로 캠핑 떠나자!

자연 속 감성 충전의 시간.
안산 도심에서 청정성 대부도까지
이어지는 감성 캠핑로드.

07 인터뷰

진정주 진약국 약사

"내가 받고 싶은 걸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에서 인기 유튜버로,
억대 기부자가 되어 전하는 나눔 스토리.

12-13 기획

청정도시 안산의 에너지 이야기

시화호의 '친환경 관광유람선'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수소시범도시'까지
에너지 자립 도시 안산을 만나다.

17 명예기자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8월의 태양보다 뜨거운 광복의 기쁨.
광복절에 꼭 기억해야 하는
안산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





안산으로 캠핑 떠나자!

수도권 최대 규모의 도심형 오토캠핑장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안산 화랑유원지에 자리하고 있는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은 가까운 도심에서 언제든지 오토캠핑과 카라반캠핑(6대)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도심형 오토캠핑장으로 식기세척실, 샤워장, 화장실, 음수대, 놀이시설, 줌라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휴장 중인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은 개장 시 이용객이 무료로 농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텃밭을 조성했다. 텃밭에는 상추,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수박, 포도나무 등을 심어 놓아 캠핑장 이용객이 언제든지 채소를 수확해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예약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에 PC로만 가능했던 예약 시스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파크 앱을 통해 캠핑 예약과 차량 번호 입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새롭게 달라진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자.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의 개장 정보는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ansanuc.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9(초지동)
문의 : 안산화랑오토캠핑장(031-481-9800~1)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카라반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줌라인

푸른섬 캠핑장



대부도 대표 관광지, 일몰 명소. 구봉도와 가까이 위치해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주소_단원구 연목이길 31-21(대부북동)
Tel_010-5390-0621

해솔길 캠핑장



소나무로 둘러싸인 캠핑장에서 맑은 공기, 가족·친구·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주소_단원구 연목이길 11-1(대부북동)
Tel_010-3305-4077

핀란드캠핑장



카라반 앞 데크에서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바비큐 등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여행.

주소_단원구 큰망생이길 15 (대부남동)
Tel_010-9230-2918

씨엘관광농원



대부도 중앙에 위치한 황금산의 기운과 3만평 규모의 자연공간에서 느끼는 숲의 기운.

주소_단원구 대부황금로 974-13 (대부동동)
Tel_010-8756-0750

대부관광농원 오캠핑



바다 바로 옆에 위치한 조용한 캠핑장. 여름 시즌에는 넓고 쾌적한 수영장을 운영한다.

주소_단원구 대남로 642 (대부남동)
Tel_010-4322-2153

고래숲 관광농원



밤나무 숲에 들러 바람을 즐기고, 갯벌에 들러 자연을 만지는 각종 농어촌체험과 캠핑

주소_단원구 장불길 14 (대부남동)
Tel_010-9031-2447



도심에서 청정성 대부도까지 이어지는 '감성 캠핑' 로드

CAMPING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요즘.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마땅한 휴가지를 고르는 것도, 마음껏 즐기는 것도 어쩐지 마음이 무겁다.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속이 탁 트이는 여행으로 캠핑을 떠나보자. 가족, 친구와 함께 한적한 숲속과 드넓은 갯벌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자연 속 감성 충전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카라반과 글램핑을 이용하면 캠핑 초보자도 쉽게 떠날 수 있다. 도심형 오토캠핑장부터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일몰을 간직한 대부도까지 감성 캠핑의 맛을 느껴보자.

비치캠핑장

일몰이 멋진 바닷가 앞 캠핑장. 계절마다 각기 다른 자연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곳.

주소_단원구 대부남동 559-106
Tel_010-4032-3379

카라반랜드

실속, 여유, 즐거움을 모두 갖춘 카라반 캠핑. 독일 정통식 카라반에서 즐기는 안락함.

주소_단원구 수영목길 27-77 (대부남동)
Tel_010-8291-7400

대부도 아라들 캠핑장

대부도 베르아델 승마장, 유리섬 미술관과 마주보고 있는 멋진 해상숲 언덕의 캠핑장

주소_단원구 부흥로 232-21 (대부남동)
Tel_010-3922-9141



대부도캠핑성

캠핑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다. 맨 몸으로 편안하고 럭셔리하게 즐기는 글램핑

주소_단원구 부흥로 232-76 (대부남동)
Tel_010-8650-5481

바다의별 관광농원

수영장부터 놀이터, 족구장까지 준비된 캠핑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드는 잊지 못할 추억.

주소_단원구 부흥로 359-14 (대부남동)
Tel_010-9943-6229

대부도나라캠핑장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의 EXO 세훈이 다녀간 캠핑장. 편안한 분위기와 시원하게 트인 바다 전경.

주소_단원구 대부남동 557-6
Tel_010-2614-4767

탄도항 노을캠핑장

2020년 2월, 새롭게 단장한 탄도항 바로 앞 캠핑장. #일몰 맛집 #낭만이 가득한 여행

주소_단원구 대부황금로 17-2 (선감동)
Tel_010-6278-9759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백사장에서 안전하게 즐겨요 연안정비사업으로 ‘깨끗하게’, 우회도로 개설 통해 ‘빠르게’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안산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대부동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여름철 방아머리 해변을 찾는 방문객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일, 주말 관계없이 안전관리 인력이 상주하며 편의시설로는 화장실 6곳, 세족장 3곳, 개수대 1곳, 관광안내소가 있다. 공영주차장은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하계휴가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교통안전과 급증하는 불법주정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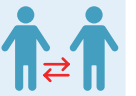
또한 휴가철을 맞아 주말이면 많은 방문객이 찾는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회로를 설치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대부도 방아머리는 시화방조제를 건너자마자 횡집과 칼국수 집이 도로 양쪽으로 줄지어 있는 구간으로,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과 영흥도 등을 향하는 차량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특히 방아머리는 횡집 등 식당 외에도 깨끗하게 단장한 소나무 숲과 해변이 있어 평상시에도 수도권의 유명한 핫플레이스답게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다.

시는 차량 증가와 소음 등으로 인해 대부도를 찾는 시민 등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7월10일부터 시범적으로 우회도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우회도로는 시화방조제를 건너면 나오는 방아머리삼거리에서 첫 번째 좌회전을 하면 방아머리 바다향기테마파크 내 시원하게 뽀은 왕복 2차선 메타세쿼이아 길 2.44km를 돌아 북동삼거리 방향 대부황금로와 바로 연결된다. 최근 차선도색까지 마친 도로는 운행 중간에 바다향기테마파크 내에 있는 시원한 습지와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개인 차양시설은 최소 2m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 해수욕(물놀이, 백사장 활동)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코 풀기 등 체액 배출을 자제하기
- 깨끗한 해변을 위해 가져온 쓰레기는 꼭 되가져가기



연안정비사업 문의 : 안산시 해양수산물(031-481-2338)
우회도로 문의 :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293)

안산시 곳곳 물들인 노란 물결, 100만송이 해바라기 만개

안산 대부도 시화지구간척지 · 단원구청사 앞, 해바라기 단지 조성



대부도 해바라기 단지

안산시 곳곳이 노란 물결로 물들었다. 안산시는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옆 시화지구간척지와 단원구청 앞 대형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대부도 대부북동 시화지구간척지 내 6만여㎡에 조성된 100만 송이의 대형 해바라

기 꽃밭은 노란 물감을 뿌려놓은 듯 장관을 이뤄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꽃밭이 조성된 시화지구간척지는 72ha의 광활한 면적에 자생하는 갈대와 각종 염생 식물 및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4.5km에 이르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과 함께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소다. 관람객을 위한 순환로와 데크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원구청 앞에도 1만6천700㎡ 규모의 해바라기·코스모스 단지가 만들어졌다. 도심 속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곳이다. 4종류의 다채로운 해바라기를 감상할 수 있으며 단지 곳곳에 포토 존과 무더위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고 있다.

안산시는 이번 해바라기 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땅고르기, 씨앗파종, 거름주기 등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개화하면서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해바라기 단지를 방문할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대부개발과(031-481-6992), 녹지과(031-481-2327)

안산에서 ‘김홍도 장사 씨름대회’ 열린다

시-대한씨름협회, 2022년까지 안산 씨름대회 개최 협약 체결



올해 설날·단오 씨름대회에서 우승한 이아란(안산시청) 선수

안산시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단원 김홍도를 활용한 콘텐츠의 일환으로 ‘2020~2022년 김홍도 장사

씨름대회’의 안산 개최를 위해 지난 7월14일 대한씨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팔용 대한씨름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산 김홍도 장사 씨름대회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안산에서 열리게 되며, 시는 대회장소 제공 등 행·재정적 지원을, 대한씨름협회는 씨름장 설치 등 대회 준비와 진행을 각각 맡는다. 올해 김홍도 장사 씨름대회를 오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개최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박팔용 대한씨름협회장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원의 도시’ 안산에서 김홍도 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한씨름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단원 김홍도의 고향인 안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족 고유의 전통스포츠인 씨름 대회를 안산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김홍도 축제와 연계한 대회 개최로 안산을 찾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992)

청년 취업 지원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사업 인기

구직 청년 사이 입소문... 540여회 청년 취업홍련옷장 이용

안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 취업홍련옷장’이 구직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2019년 3월, 청년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홍련옷장’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운영을 시작했다.

(사)열린옷장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 청년 취업홍련옷장은 지난해에만 총 399회 이용되는 등 구직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기업 규모별 면접 복장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150회, 대기업 57회, 중소기업 192회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중 취업자는 공공기관(금융 포함) 및 대기업 43명, 중소기업 60명 등 총 103명으로 취업 성과 또한 매우 높았다.

올해 청년들의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실적은 코로나19 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는 등 힘

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한 달 기준 이용회수가 141회에 달했다.

청년 취업홍련옷장 이용 대상은 관내 거주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면접 응시자면 된다. 1인당 연 5회까지 면접용 정장 일체(▲남자 : 상하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 벨트 ▲여자 : 상하정장, 블라우스, 구두)를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수령일로부터 3박 4일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분야별 정보-경제/일자리-취업정보-청년 취업홍련옷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초로 이용할 경우, (사)열린옷장에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정장을 조정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택배로 수령 및 반납하면 된다. 대여기간 연장, 대여 연체, 물품 훼손 시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취업프로그램 제공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충해 안산시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를 성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열린옷장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13, 502호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2882)

안산시, 청소년 5만여 명에게 안전주머니 보급

화재, 감염병 등 재난 위기상황 시 어린이·청소년 생명 및 안전 보호

안산시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주머니’ 5만여 개를 관내 초·중학교에 전달했다. 관내 초등학교 55개교·중학교 29개교, 총 84개교의 학생 5만여 명에게 1개씩 전달된 안전주머니에는 생명수건, KF94 마스크, 안전호루라기, 손세정제(30ml) 등 4종류의 예방용품이 담겨져 있으며, 화재 및 범죄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가방에 걸 수 있게 제작됐다.

생명수건은 자연 추출성 특수용액에 젖은 3중 필터형태의 습식 손수건으로 화재발생 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할 때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와준

다.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평소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이 있거나 위기상황이 발생해 긴급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호루라기를 꺼내 사용하면 된다.

이번 안전주머니는 화재나 감염병 발생 시 일반 성인보다 재난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 18세 미만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안산시가 제작, 보급했다.

시 관계자는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물품을 지원



하게 됐다”며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물품 지원 뿐 아니라 안전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2726)

안산시, '마음건강 로켓처방', 시민 마음 위로 '특효'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인근 지자체 등 무료 보급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외출, 모임 자제 등 일상의 변화로 인해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한다.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마음건강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마음건강 로켓처방 프로그램'을 지난 5월 개발해 시행하며 시민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위로에 나서고 있다.

마음건강 로켓처방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마음건강문제와 스트레스 요인, 부정적 감정 등 고민을 접수하면 정신건강전문가가 24시간 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정신건강증진 팁을 제공한다. 마음건강 로켓처방은 온라인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운영되면서 3천500여명의 시민이 접속해 자신의 고민을 접수하고 다양한 처방을 받았다.

시민들은 주로 우울, 불안 등 기본문제부터 자존감, 대인관계 문제, 직장생활, 건강문제 등의 순으로 마음건강문제를 호소했으며 ▲긍정처방 ▲오감처방 ▲여가처방 ▲운동처방 ▲여행처방 등 생활 속 정신건강 팁이 담긴 다양한 처방들이 제시됐다.

또 마음건강 처방을 받고 실천한 100여명의 시민에게는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정신건강아이템으로 구성된 오감키트를 집으로 전달해 정신건강 실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다양한 정신건강 팁이 담긴 처방들로 시민의 마음건강관리와 실천을 돕고, 고민상담 등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과 조기치료연계 및 치료비지원을 통

해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마음건강 로켓처방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인근 지자체 등 여러 곳의 정신건강기관에서 문의와 보급 요청이 쇄도, '마음건강 로켓처방', '마인드', '오감키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과천·군포·하남·이천시 등에 무료 보급을 시작했다. 이어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해 전 국민의 지친 마음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기 위한 일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재훈 안산단원보건소장은 "안산시는 마음건강 로켓처방 사업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받고 긍정적 기운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음건강 로켓처방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http://rocket.ansanmind.or.kr>)에 접속하면 쉽게 참여 가능하다.

문의 :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11-7573~4)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안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

2차 참여자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모집 예정



안산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계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확대 방침에 맞춰 시작된 이번 일자리 지원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취약계층, 실직자, 휴·폐업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안산시민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시민, 현재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시민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안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 1차 참여자 1천680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민간생활방역단 ▲안산스마트허브 도로환경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계

도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 및 상가주변 청소지원 등 61개 사업 분야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일하게 된다. 주 5일 근무 원칙으로 4대 보험가입과 함께 최저시급 8천590원, 교통·간식비 등으로 하루 5천원과 주·월차 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시는 앞서 전담부서로 '뉴딜 일자리 사업 태스크 포스(TF)'를 신설하고, 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8월10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하는 제2차 안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서도 다양한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TF팀(031-478-7646~7, 7653~4, 7693~4, 7639)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코로나19 방역과 여름철 위생점검 철저



안산시는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과 관리직원은 소매점 및 중도매인 점포 등 108개소를 돌며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와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주로 발생 할 수 있는 질병 예방을 위해 도매시장 출입구와 배수로를 수시로 청소하고 위생장갑, 위생모 착용 요청 등 농수산물 위생관리에 철저를 당부했다.

8월3일부터 5일까지 하계휴업에 들어가는 수산부류에 대한 방역관리 누수가 없도록 휴업일 기간에도 예방방역 및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방역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만이 예방 백신이다"라며 "도매시장 이용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정적 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농업기술센터(031-481-2771)

베스트셀러 저자에서 인기 유튜버로, 이제는 역대 기부자가 되어 나눔 실천에 나선 진정주 약사

INTERVIEW

“기부는 너무나 신나는 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안산에서 21년째 약국을 운영 중인 진정주(50·진약국) 약사는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안산시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소외계층 후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잇달아 내놓은 것이다. ‘기부는 곧 행복’이라는 진 약사를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진약국에서 만났다.

진 약사는 올해 초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 5천만 원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쾌척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대학의 시간강사와 생활고를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보태고 싶은 마음에서 기부에 나섰다.

그는 “사회에 기여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환원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기부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진 약사는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 탓에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다. 그가 ‘기부’라는 삶의 목표를 갖게 된 이유다. 그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조금씩 장학금을 받았다.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대학을 못 갔을 거다. 지금도 대학교 동문회에서 받았던 장학금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기억”이라고 말했다.

진 약사는 역대 기부자로 알려지기 전에 건강부문 베스트셀러 ‘아파도 괜찮아’의 저자이자 10만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인기 유튜버다. 2018년 초, 첫 번째 책을 낸 뒤 허전함을 느꼈던 중 유튜브 채널 ‘진약사톡’을 열어 건강지식 관련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다. 혼자 영상을 찍고 조카에게 편집을 부탁하며 20년 간 쌓은 노하우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했다. 채널은 개설한지 6개월 만에 대박을 터뜨리며 인기 채널로 자리 잡았다.

진 약사는 “건강 관련 콘텐츠는 지루해서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다. 사람들에게 각종 건강지식을 전달하고 약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고 싶은 마음에서 시



작한 유튜브가 큰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을 보고 브라질, 칠레 등 해외에서도 상담을 받기 위해 약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약국에는 진 약사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진 약사는 약국의 본래 기능이 ‘상담’이라고 강조했다. 진 약사는 “약국은 단순하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타기 위해 들르는 곳이 아니다”라며 “나이가 들수록 머리말에 약봉지가 많아지는데 이때 처방받은 약 사이에 상호작용이나 주의 사항을 꼭 숙지한 뒤 복용해야 한다. 이를 돕는 역할이 바로 약사”라고 설명했다.

기부와 봉사하는 삶을 그리고 있는 진 약사의 앞으로의 꿈은 복지재단을 세우는 것이다. 진 약사는 “재산을 기부해 복지재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오는 일정한 수익으로 꾸준히 기부하는 것이 꿈이다. 기부할 수 있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 기쁜 것처럼 앞으로의 행복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위치 :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1층 (고잔동)
문의 : 진약국(031-403-7574)

진정주 약사가 전하는 면역력 높이는 방법 ‘바이러스와 비타민C’

감기와 독감, 통증으로 시작해서 가렵기도 하다가 척수까지 침투해 극심한 3차 신경통을 유발하는 대상포진, A·B·C형 간염과 수두까지 모두 바이러스 질환이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바이러스의 정체는 뭘까?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로 사멸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명체의 특징과 물질의 특징을 모두 가진 바이러스는 사멸이 불가능하다. 몸 밖에 있으면 물질일 뿐인데 적절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세균처럼 생명체로 살아난다.

어렸을 때 바이러스성 질환 중 하나인 수두를 심하게 앓고 나면 면역체가 생겨 다음부터는 옆에 수두를 앓고 있는 친구가 와도 수두에 걸리지 않는다. 이상한 것은 성인이 되고 난 후 면역력이 뚝 떨어져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는데, 어렸을 때 수두 바이러스가 잠재되어 있다가 올라오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세균처럼 항생제로 잡을 수 없다.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쓰는 것은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한 2차 염증만 잡을 뿐 바이러스는 죽일 수 없다. 바이러스는 결국 우리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한다.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비타민C가 가장 훌륭한 항바이러스제다. 예를 들어 비타민C 1000mg를 시간당 1알씩 계속 먹거나 2~3시간마다 1알씩만 먹어도 감기가 오는 듯 하다가 사라진다. 우리 몸속에 비타민C가 들어오면 한 바퀴 돌고 바로 소변으로 빠지는데 비타민C의 일정한 농도가 혈액 속에 계속 있게

되면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한다. 수두와 간염, 대상포진에도 마찬가지.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강력 추천한다.

가장 안전한 항암제이기도 하며 가장 좋은 방광염 치료제, 노화억제제인 비타민C 고용량요법을 할 때는 비타민B 100mg도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한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비타민B의 상대적 결핍이 온다. 또한 비타민 B는 가장 좋은 신경비타민, 바이러스는 보통 우리 몸에 들어와 혈관과 신경을 타고 다니면서 병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비타민B가 필요하다. 종합영양제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B의 용량으로는 부족하고, 비타민B100이라고 적혀있는 비타민을 복용해야한다.



문화징검다리-예술열차 안산선이 'Re Start × 문화극복' 위해 달린다!

안산문화재단, 유튜브로 관객을 찾아가는 문화 공연 마련



안산지역 문화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문화징검다리-예술열차 안산선'이 지난 7월8일 상록수역에서 출발했다. 올해로 5년째 운영 중인 예술열차 안산선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시에 '새로운 일상, 희망의 발견'을 콘셉트로, 'Re Start × 문화극복'이라는 주제를 정했다. 예술열차 안산선은 2019년까지 시를 관통하는 4호

선과 서해선 전철역사(이하 역사)의 유휴 공간 및 광장에서 집합 행사로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제 역사와 가상의 역사를 연결한 온-오프라인 이원체제로 방식을 바꿔 개최한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 공연장에 가상의 역사를 만들고, 실제 역사 앞에는 QR코드 조형물을 설치해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안산시 유튜브에서 실시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첫 출발지, 상록수 공연은 가상의 역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생활예술동호회 '안산 기타 앙상블'과 코로나19 긴급예술지원 선정 단체인 '해피준 ENT' 두 단체가 첫 무대를 열었다. 이어 프로젝트 그룹 '유희스카'가 '신나는 놀이판; 각자의 리듬'을 주제로 신명나는 놀이판을 벌였다. 이날 공연은 8월1일

까지 문화의 날 주간 동안 다시 한 번 안산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예술열차 안산선은 상록수역을 출발해 반월역(7월 29일), 선부역(8월26일), 중앙역(9월26일~10월3일), 고잔역(10월 8일), 안산역(10월31일)으로 이어진다. 모든 공연은 QR코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안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 예술열차 안산선은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상록구 '감골 주민회'와 함께 시작했다"며 "방역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술인과 시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만들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새로운 문화의 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안산문화재단(031-481-052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등불카페에서 열리는 우리 동네 '낭독 극장' 보러오세요"

'학교 가는 길 · 별망엄마 · 어느 멋진 날 · 완벽한 저녁'...극단 '동네풍경'이 선사하는 특별한 시간



극단 '동네풍경'은 오는 9월까지 굿빌리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등불카페(단원구 단원로 57-6)에서 무료로

'낭독 극장'을 연다. 낭독 극장은 기존 연극 방식과 달리 극단 동네풍경의 작품들을 모아 배우들이 직접 희곡을 읽으며 진행하는 연극이다.

극단 동네풍경은 2019년 '우리 동네 편의점 블루스' 공연을 선보이며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6월 첫 번째 작품으로 '스프링 어드벤처 온라인'을 선보였으며 '학교 가는 길', '별망엄마', 뮤지컬 '어느 멋진 날', '완벽한 저녁' 등을 연달아 공연한다.

동네풍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꾸준히 세월호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이번 낭독 극장에서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담은 연극을 만날 수

있다.

단원구 고잔동 소생정원 빌라 사이를 지나 단원고 앞까지 이어지는 거리극 '학교 가는 길'에서는 주인공 연우가 밝은 웃음을 지으며 학교로 뛰어 가는 마지막 장면에서 연극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와 슬픔을 느끼게 한다.

동네풍경 관계자는 "지난 6년 동안 안산시민들과 함께 숨 쉬고 마음을 나누는 작품들을 낭독공연으로 준비했다. 누구나 와서 함께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극단 동네풍경(010-4180-5230)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언제, 어디서나 안산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성호박물관,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에브리 이억' 진행

성호박물관이 코로나19 사태로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로하는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에브리 이억'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언제나(every time), 어디서나(every where)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성호박물관이 된다'를 주제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생활'을 모두 만족하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호박물관이 기획했다. 장소와 시간, 나이와 연령을 뛰어넘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시민과 교감하는 박물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성호박물관은 휴관 기간 동안 온라인 전시와 교육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며 재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올

해 2월 성호기념관에서 명칭을 바꾼 성호박물관은 현장 관람의 어려움을 감안해 VR 제작과 전시 관련 영상물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달라진 박물관 내부 모습과 진주유씨 집안의 유물전 관련 새 기획전시를 성호박물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또는 홈페이지에서 영상과 VR 전시로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다.

또 박물관에서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은 '갑니다, 성호택배'라는 이름으로 유아와 초등학생, 성인 대상의 '찾아가는 교구재'를 제작해 8월부터 배포한다.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전시실 유물을 영상으로 감상하고 직접 전시 관련 부교재를 만들어 성호사설과 성호이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선착



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성호박물관에서 자체 제작한 교구재 만들기 재료를 무료로 발송한다. 성인 대상으로는 실학자 성호이억 선생의 글귀 40개를 선별해 만든 필사노트를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한다.

성호박물관에서 마련한 이번 전시 연계 프로그램과 이벤트는 박물관 SNS와 홈페이지(seongho.ansan.go.kr)를 통해 공개된다. 각종 프로그램과 챌린지 참가자에게는 각종 상품도 지급한다.

문의 : 성호박물관(031-487-2574)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2020 안산시청소년어울림마당 ‘놀자!’... 드라이브 스루로 즐기는 다양한 체험키트



2019 안산시청소년어울림마당 부채만들기 체험 행사

안산시청소년재단 상록청소년수련관은 8월1일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로 진행되는 ‘2020 안산시청소년어울림마당, 놀자!’을 개막했다. 안산시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꿈과 재능을 펼치는 안산시 대표 청소년 축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진행 방식을 바꿨다.

올해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집에서 놀자!’를 주제로 열린다. 현장에서 진행했던 ‘모기 기피제 만들기’, ‘스칸디아모스 나무액자 만들기’, ‘에코백 꾸미기’, ‘노 오븐 브라우니 만들기’,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을 집에서 즐길 수 있다.

지난 달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 활동을 희망한 신청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체험키트를 제공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로 체험키트를 받아가는 동안 다양한 비대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해 즐거움도 선사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일정은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22일 ‘Purple과 놀자!-방구석가요제’, 9월26

일 ‘Blue와 놀자!-드라이브스루 체험마당’, 10월24일 ‘Pink와 놀자!-찾아가는 청소년어울림마당’, 11월14일 ‘Rainbow와 놀자!-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 등이 총 5회에 걸쳐 열린다.

정병국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청소년 활동이 이번 청소년어울림마당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청소년 문화를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소년재단 상록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sangnok.ansanyout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상록청소년수련관(031-417-1725)

안산시평생학습관 ‘2020 하반기 정규과정’ 수강생 모집

안산시평생학습관은 8월부터 12월까지 16주 간 열리는 ‘2020 하반기 정규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오프라인 강좌를 병행해 진행한다.

정규과정은 분야별로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다. 평생교육 6진 분류체계를 토대로 강좌를 운영한다.

총 29강좌가 열리는 이번 정규과정 중 온라인 강좌는

총 3개로 ‘시니어 유연성 기르기’, ‘OA마스터’, ‘초급 영어회화’ 등이다. ‘줌(Zoom)’ 앱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화상수업으로 이뤄진다. 이어 오프라인 강좌는 기존 인원을 50% 감축했다. 사회적 거리 유지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운영한다. 특히 8월12일에는 ‘포스트코로나’를 키워드로 한 ‘운동 웹 콕! 평생학습시대(온라인으로 통하는 지금은 웹으로 집콕!하며 즐기는 평생학습시대)’의 웨비나 특강이 열린다. 웨비나란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마

이크, 전화 등을 이용해 강사와 참석자 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우리가 평생학습을 대면할 때 가져야할 새로운 교육 측면과 태도 등 방법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하반기 정규과정 일반 접수는 8월3일부터 7일 오후 2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ians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안산시평생학습관(031-409-1877)



하반기 정규과정 프로그램



강좌	요일&시간	정원	개강일	강좌	요일&시간	정원	개강일
1 감성생활글쓰기	수 오후 7시~9시	10	08월 26일	16 카메라에 담는 세상	화 오전 10시~12시	10	09월 01일
	목 오후 7시~9시				화 오전 10시~오후 1시		
2 플루트 교실	금 오전 10시~12시	10	08월 21일	18 추억의 팝송으로 영어와 친해지기	수 오전 10시~12시	18	08월 31일
	수 오후 1시~3시				금 오후 7시~9시		
3 생활 속 고운 전통매듭	목 오전 10시~12시	8	08월 27일	21 하모니카	수, 금 오후 1시30분~2시30분	13	08월 21일
	금 오전 10시~오후 1시				수 오전 9시30분~12시30분		
4 클래식음악과 성악	월 오전 10시~오후 1시	8	08월 31일	22 웰빙 휘트니스	화, 목 오전 11시~12시	20	08월 25일
	화 오전 10시~오후 1시				수 오전 10시~12시		
5 일식조리기능사	수 오전 10시~12시	15	08월 27일	24 서양화	화, 목 오전 11시~12시	20	08월 25일
	목 오후 2시~4시				화, 목 오전 11시~12시		
6 건강한 사계절 밥상차림	월 오전 10시~12시	10	08월 31일	26 시니어 유연성기르기	화, 금 오전 10시~11시	18	08월 25일
	수 오전 10시~12시				화, 금 오후 4시~5시30분		
7 제과기능사	목 오전 10시~12시	10	08월 27일	27 OA마스터 (파워포인트+엑셀+한글)	월 오전 10시~12시	20	08월 31일
	수 오전 10시~12시				수 오전 10시~12시		
8 선물하기 좋은 베이킹	수 오전 10시~12시	10	08월 26일	28 초급 영어회화	수 오전 10시~12시	8	08월 26일
	월 오전 10시~12시				수 오전 10시~12시		
9 명심보감	수 오전 10시~12시	10	08월 26일	29 업사이클링 가죽공예 (1-8주 : 오프라인, 9-16주 : 온라인)	수 오전 10시~12시	8	08월 26일
	목 오후 2시~4시				수 오전 10시~12시		
10 스마트폰 어플 알차게 활용하기	월 오전 10시~12시	10	08월 31일	온라인			
	수 오전 10시~12시			화, 금 오전 10시~11시	18	08월 25일	
11 삶이 더 즐거워지는 사진편집	월 오후 2시~4시	10	08월 31일	27 (파워포인트+엑셀+한글)	화, 금 오후 4시~5시30분	15	08월 25일
	목 오전 10시~12시				월 오전 10시~12시		
12 컴퓨터 기초부터 활용까지	수 오전 10시~12시	10	08월 26일	28 초급 영어회화	수 오전 10시~12시	8	08월 26일
	목 오전 10시~12시				수 오전 10시~12시		
13 문인화	수 오전 10시~12시	10	08월 26일	29 업사이클링 가죽공예 (1-8주 : 오프라인, 9-16주 : 온라인)	수 오전 10시~12시	8	08월 26일
	목 오전 10시~12시				수 오전 10시~12시		
14 일본어회화초급	수 오전 10시~12시	10	08월 26일	29 업사이클링 가죽공예 (1-8주 : 오프라인, 9-16주 : 온라인)	수 오전 10시~12시	8	08월 26일
	목 오전 10시~12시				수 오전 10시~12시		
15 사각사각 전통각자(서각)	수 오전 10시~12시	10	08월 26일	29 업사이클링 가죽공예 (1-8주 : 오프라인, 9-16주 : 온라인)	수 오전 10시~12시	8	08월 26일
	목 오전 10시~12시				수 오전 10시~12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움직이는 '온마을 자연학교' 시리즈 ①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춘 안산은 생태환경도시로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재단을 설립했다. 안산환경재단이 지원하는 안산형 시민환경교육 통합 브랜드 '온마을 자연학교'는 마을 주민이 환경교육의 리더가 되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벌인다. 지역 자연 생태환경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온마을 자연학교 동아리를 6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한다.

업사이클링 동아리

내 손은 똑딱똑딱 마술사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나요?” 버려지는 옷과 물건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담은 새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Up-cycling)’은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와 가치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는 온마을 자연학교 동아리 ‘내 손은 똑딱똑딱 마술사’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빠르게 제작하고 유통하는 ‘패스트 패션’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와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 교육을 펼친다.

내 손은 똑딱똑딱 마술사의 장경옥 회장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빠르게 제작하고 유통하는 ‘패스트 패션’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소비심리를 만든 원인”이라며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도 유행이 지났다

는 이유로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4년째 활동 중인 내 손은 똑딱똑딱 마술사는 2009년 안산환경재단에서 진행한 강사양성 과정을 거친 5명의 환경강사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다. 과정을 수료한 이후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의미한 활동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업사이클링 주제로 한 환경 교육을 펼치기 시작했다. 관내 학교 10여 곳과 지역 아동 센터 등에서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청바지, 플라스



틱 등을 업사이클링하며 새로운 가치를 담아낸다.

장경옥 회장은 “특별한 기대 없이 참여한 분들도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한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나면 보람을 느끼며 즐거워한다”며 “업사이클링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업사이클링 시간을 통해 이미 사용한 물건들을 바로 버리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환경재단(031-599-9405~6)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62개 단체 참여,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출범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에 이어 기후비상에 다다르고 있는 지금, 문명의 편의와 더불어 생태계는 파괴됐고 기후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속에서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기관들이 모여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을 출범시켰다. 이번 출범으로 생태계 위기에 대한 비상을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는 등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 논의 구조 마련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WCA 등 62개 단체와 기관은 지난 7월10일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출범식을 가졌다.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현재의 재난을 막고 지구 평균기온 1.5°C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과 전 세계 과학자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면서 “산업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변화와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한 안산시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 ‘안산시의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즉각적인 조례 제정’,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 수립’ 등을 촉구했다.

양애자(안산YWCA 회장) 공동대표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하는데 2050년이면 아주 위험한 단계에 이른다”고 한다.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실천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안산비상행동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행동으로 나서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031-483-0221)
황정옥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백만이 프로젝트', 안산시민 백 명이 만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인다!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인 1명이 연간 생수 페트병 96개와 일회용 플라스틱 컵 65개, 일회용 비닐봉투 460개 등 총 11.5kg의 플라스틱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1인당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바꿔보겠다는 움직임이 안산에서 일어났다.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산YW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소비자시민모임, (사)더좋은공동체 등이 활동하는 안산자원순환연대는 7월 한 달 동안 '백만이 프로젝

트'를 진행했다. 백만이 프로젝트는 안산시민 백 명이 한 달 간 만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안산자원순환연대가 기획했다.

프로젝트는 참가자들이 '플라스틱 페트병과 빨대 사용하지 않기', '장바구니와 반찬통 등 포장쓰레기 줄이기',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안 받기', '페트병 비닐과 링 제거 후 행귀서 배출하기' 등을 실천하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올리면 참가자 중 100명을 뽑아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백만이 프로젝트 관계자는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자원순환 마을과 연계한



주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 자원순환 캠페인,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031-486-5120)
황정옥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건강지식 Q&A

여름철 식중독 주의보! 식중독 증상과 예방법



올해 여름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은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발생 원인을 알면 예방도 가능한데요. 식중독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식중독이란?

식중독은 균(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것이 원인이 되어 구역, 구토, 설사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바이러스 중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세균으로는 살모넬라와 대장균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기생충은 각 지역별로 흔한 균주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 어떻게 음식이 오염되나요?

균이 음식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오염된 손을 세척하지 않고 조리하는 경우 음식에 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균이 음식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척되지 않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은 경우에도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음식을 다룬 조리도구를 다른 음식에 다시 사용하면 음식 간에 균이 전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Q. 식중독 증상은 무엇인가요?

증상 발생은 원인 음식을 섭취한 직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며칠 또는 몇 주 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식중독 시에는 구역, 구토, 복통,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발열 증상이 생깁니다. 이 증상들은 일부만 나타나거나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Q.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탈수는 몸에서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상태를 말하는데요.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복부증상이 있더라도 소량의 음식 섭취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화가 어려운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피곤함을 느끼지 않도록 무리가 될 만한 운동이나 업무는 중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병원에 꼭 가야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루 내에 6회 이상 다량의 물 설사가 있을 때. 둘째, 구토나 배변 시 출혈이 보일 때. 셋째, 38.5도 이상의 발열이 이틀간 지속될 때. 넷째, 복통이 극심할 때. 다섯째, 탈수징후*가 보일 때(특히 노인, 영유아)

*탈수징후란?

- 다량의 수양성 설사가 지속되고 피로감이 심할 때 · 갈증이 나며 입이나 혀바닥이 마를 때
- 근육경련, 어지러움, 의식이 혼미할 때 · 소변이 5시간 이상 나오지 않거나 진한 노란색일 때

Q. 식중독은 어떻게 치료받나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수치료를 위해 정맥주사로 수액치료를 하거나 식중독의 원인이 세균일 경우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혈성설사나 발열이 심한 경우, 증상 호전을 위해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지사제는 대부분의 설사에서 도움이 되지만 감염성설사(혈성설사, 고열 동반)의 경우에는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식중독은 예방할 수 있나요?

음식에 균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손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저귀를 갈거나 화장실을 이용한 후, 재채기나 기침을 한 후, 동물을 만지거나 더러운 물건을 만지고 난 후에는 손을 반드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멸균되지 않은 우유 섭취를 피하고 과일, 채소는 먹기 전 반드시 세척해야 합니다. 냉장고의 냉장 온도는 섭씨 4.4도 이하, 냉동 온도는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육류나 생선, 달걀노른자는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 육류 등 날 음식재료를 다룬 도마, 칼, 식기 등은 사용 직후 세척해야 합니다.

글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이선홍 내과 진료과장

“치매어르신들의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상록수보건소,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만들기 동참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75만 여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오는 2024년에는 치매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보다 가족 내부 문제로 국한하고 있다.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이해하고 일상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록수보건소는 최근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 만들기를 위한 ‘치매파트너’ 양성에 나섰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따뜻한 동반자로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배려하기, 응원하기, 정보전달 등 3가지를 주요 실천 활동으로 펼친다. ‘치매어르신에게 먼저 다가가 배려하기’, ‘온·오프라인 캠페인 참여하기’, ‘치매 관련 정보 전달 활동하기’ 등이다.

이와 함께 치매와 관련한 희망 메시지를 작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온라인 소통 활동과 치매극복의 날 또는 치매극복 걷기 행사 등의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면 자원봉사시간 등록도 가능하다.

치매파트너로 활동 중 추가 보수교육을 받으면 치매파트너플러스로 활동할 수 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와 학교, 봉사모임 참여,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에 진



행보자로 참여할 수 있다.

치매파트너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며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록수치매안심센터를 관할 센터로 지정한 뒤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면 치매파트너증이 발급된다. 온라인 치매체크 앱에서도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치매파트너 홈페이지(<https://partner.nid.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031-481-585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에너지 자립 도시로 성장하는 안산에서 청정에너지를 느끼다

올해로 제17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지구온난화로 발생한 기후변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지구와 환경,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안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200%, 신재생 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한 '에너지비전 2030'을 선포했다. 가정 에너지지단,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 친환경 관광유람선 운항 등 수많은 에너지 절약 시책을 펼치며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안산시는 수소시범도시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 사회와 수소 경제

를 지향한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수소 생산부터 저장, 이송, 활용까지 전 주기의 수소 생태계와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업과 주거 등 모든 분야에 수소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표 활용 사례로는 주거·교통 분야에서 수소자동차와 연료전지를 활용한 전기사용과 온수 공급 난방 등이다.

또 천혜의 자연을 품은 대부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누에섬 풍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에너지특구)로 지정되면서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 도시 안산이 이끌어갈 청정에너지 모범사례들을 살펴보자.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의 시작, 시화호 뱃길에 띄우는 '친환경 관광유람선'



친환경 관광유람선을 타고 시화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다. 시화방조제로 단절됐던 시화호 뱃길이 26년 만에 복원되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친환경 해양레저 관광지로 떠올랐다.

안산시는 최근 시화호 뱃길을 운항할 선박으로 청정에너지를 사용한 친환경선박

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21년 4월이면 100% 친환경 에너지로 움직이는 관광유람선을 타고 시화호를 느낄 수 있다. 새로 도입하는 관광유람선은 전기와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만으로 작동하는 친환경선박이다.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선박은 길이 17m, 폭 6.5m 크기로 총 15톤 규모다. 승객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실과 선상 관람을 위한 2층 구조로 이뤄졌다. 선박은 화장실과 자전거 거치대, 음향·영상장비 등 각종 편의장치와 항해장비, 승객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등을 탑재한다.

친환경선박은 선박 건조에만 17억9천300만원이 투입돼 9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친다. 이후 한 달간 시범 운행한 뒤 2021년 5월부터 안산시내와 대부도 21km 구간을 본격 운항한다.

이번에 복원되는 시화호 뱃길은 사리포구가 있던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인근 안산천 하구에서부터 반달섬을 거쳐 시화호방조제 안쪽 옛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이어지는 옛 항로다. 사리포구 재현 등 역사와 문화 자원으로 함께 복원돼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박에 필요한 전기 충전설비 등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시화호의 친환경 수상관광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3952)

수소시범도시 안산에서 만나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소 기술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안산시는 올해 관계 기관 7곳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수소 사회 만들기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

정부는 2019년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안산과 함께 전주·완산, 울산 등 3개 도시를 수소시범 도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안산은 오는 2022년까지 수소 생산부터 저장, 이송, 활용까지 전 주기의 수소 생태계와 인프라를 구축한다. 시화호조력발전소의 잉여 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수소 생산 실증도 이뤄진다.

안산에 수소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안산시 내 산업과 주거 등 모든 분야에 수소 기술을 도입하면 주거·교통 분야에서 수소자동차, 연료전지를 활용한 전기사용과 온수 공급 난방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안산도시개발(주) 내 유희부지에 LNG를 활용해 수소를 추출하는 생산기지가 구축되면 수소충전소와 수소버스, 수소지게차, 수소선박 운영 등을 통한 실증이 이뤄진다. 특히 기체상태의 수소를 압축해 운송하거나 탱크로 보관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배관을 이용해 이송하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 시민의 수소자동차 이용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수소전기차 30대 보급을 목표로, 인근 타시·군보다 250만원 더 많은 구매보조금 3천500만원을 한차례 확대 지원했다. 수소시범도시로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도록 수소차와 전기차의 보조금을 늘린 것이다. 연말까지 총 45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수소 사회를 구현할 안산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소 기술을 직접 경험해보자.

문의 : 안산시 신성장전략과(031-481-2103)

Safe 안전하게! Save 절약하고! Smart 똑똑하게! 슬기로운 에너지생활

<p>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p>  <p>창문 닫고 냉방하되 환기 시 가동 정지!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바람의 세기를 낮춰 사용하기</p>	<p>에어컨 사용 전 필터 청소</p>  <p>세균으로 인한 질병 예방 에너지 5% 절감, 전기요금 27% 절약</p>	<p>문 닫고 에어컨 사용</p>  <p>문 열고 냉방 시 닫았을 때 보다 전력소비 최대 4.4배 증가</p>	<p>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C 설정</p>  <p>26°C</p>	<p>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사용</p>  <p>대상 제품 구매 시 10% 구매비용 환급</p>
---	--	--	---	--

시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에너지 자립을 꿈꾸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부터 지역사회 공헌까지 앞장선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공공기관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안산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 전환 등을 목표로 세우고 2012년 출범했다. 시민단체와 지역에너지절약 추진단체 등 14개 단체와 시민들이 활동

중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조합원 1천43명이 참여 중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총 2천592 kWp 용량의 23개 발전소를 안산시 공공기관 옥상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연간 3천500 MWh의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하는데, 화력발전과 비교하면 연간 3천920톤의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조합의 수익도 지역과 꾸준히 공유한다. 3년 연속 5% 출자금 배당으로 조합원과 수익을 나누고 있다. 또한 2019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 나눔 활동을 위해 4천750만원 상당의 에너지복지사업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2억7천만원 상당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계획 중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상록구 월피동 광덕종합시장 1층 공유마켓에 새로 입점한 '안산 에너지마켓'을 활성화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LED 등기구와 미니태양광등 고효율 에너지기기를 전시, 보급하는 에너지마켓을 운영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과 시민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시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어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기후위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 등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모임)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위기 보고서에서는 10년 안에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치 아래로 낮추지 않으면 급기야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고, 많은 전문가들도 인류의 생존을 걸고 전쟁을 치르듯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의 보급 임무를 지닌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를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판매해 시민들에게 5%의 배당도 지급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031-483-3428)



"시민이 에너지다! 절약이 발전소다!"
'안산에너지전환과자립네트워크' 출범



소비전력 진단

안산녹색소비자연대 회원들의 힘을 합쳐 올해 출범한 안산에너지전환과자립네트워크(옛. 안산에너지절약마을추진협의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중심 에너지 실천체계' 마련과 시민의 정책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구 온도 1도 내리기 안산시민 5대 실천캠페인'은 안산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 절약과 녹색소비생활 등의 정보를 매달 2회에 걸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한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구를 살리는 스위치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시작한 안산의 대표 시민운동인 안산에너지절약마을운동은 14년 간 진행해 온 가정 에너지진단과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안산에너지전환과자립네트워크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사용 습관을 전환하는 시민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서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 전략인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불을 끄고 별을 쬐다', 제17회 에너지의 날 맞이 소등행사 청소년 서포터즈 모집

매년 8월22일은 에너지의 날이다.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인 2003년 8월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했다.



안산녹색소비자연대는 올해 제17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안산에너지전환과자립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5~6곳과 '불을 끄고 별을 쬐다'를 주제로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시내 곳곳에서 동시에 10분 동안 전등을 끄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한다. 안산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한 이번 소등 행사에는 올해 시내 아파트 3만 세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의 날 기념 소등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청소년 서포터즈도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안산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다. 8월10일~14일 중 희망 날짜를 선택해 스위치 캠페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증 캠페인에 참여한 뒤 8월22일 열리는 소등 행사에 참여하면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365 자원봉사 7시간을 받을 수 있다.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별도의 문화광장 행사 없이 소등 행사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안산녹색소비자연대(031-485-1199)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시민의 권리를 높이는 시민옴부즈만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난 7월1일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이영갑(좌), 함정규(우)

행정 고충민원, ‘시민옴부즈만’에게 도움 받자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이란 뜻이다. 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위법 행위로 생기는 민원과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안산시는 민원고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해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시가 위촉한 시민옴부즈만은 공무원이 아닌 행정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시민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상담을 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조정하는 일을 한다. 그 외에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에는 의견을 제안하며 시정권고한 일이 잘 시행됐는데 확인하고 점검한다.

고충민원 신청대상은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받은 사항에 대한 민원이다. 이어 고충민원 신청 제외대상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해 이미 결정된 사항,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 간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접수된 고충민원은 시민옴부즈만이 직접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 법률 자문 등의 조사 과정을 거쳐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리현장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안산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금 관련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2019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지방세 고충민원처리와 이를 위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등이 있다. 또 가산세 감면 신청,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신청,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와 고발도 수행한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의 위법과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세금관련 고충민원 신청대상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다. 세금관련 고충민원 신청 제외대상은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이다. 세금관련 고충민원은 각 사안에 따라 신청 및 처리기간이 다르므로 상담신청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문의 : 안산시 감사관(031-481-2682) /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시민옴부즈만 제도 상담 신청방법

- ① 방문상담(안산시청 제2별관 2층, 월~수요일 오전10시~오후5시)
- ② 우편(단원구 화랑로 387, 시민옴부즈만 사무실)
- ③ 전화(031-481-2682) 및 팩스(031-481-3204)

※ 신청서 양식 : 안산시청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 민원서비스 > 시민옴부즈만 > 고충처리민원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상담 신청방법

- ① 방문상담(안산시청 제2별관 3층, 월~수요일 오전10시~오후5시)
- ② 우편(단원구 화랑로 387,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
- ③ 전화(031-481-2682) 및 팩스(031-481-3204)

※ 신청서 양식 : 안산시청 홈페이지(www.ansan.go.kr)
분야별정보 > 생활정보 > 납세자보호관



안산시, ‘마음편한 타요 서비스 개시’... “몸이 불편하지 않아도 마음 편히 타세요”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버스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늘 어렵고 불편하다. 신체상 장애도 아니어서 바우처 택시나 하모니 콜과 같은 보행 장애가 있어야만 탈 수 있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를 위해 발달, 청각, 언어 장애가 있어도 보행상 장애가 없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마음편한 타요’ 서비스가 마련됐다.

안산시는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차량 2대를 추가 지원하고, 7월부터 ‘마음편한 타요 서비스’를 개



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 청각, 언어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인옥 안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발달 · 청각 · 언어장애인처럼 여러 장애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이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돼 가족들을 대신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서비스를 개시하고 3주 동안 80여회 정도가 운행됐는데 더 많은 홍보를 통해 타요 서비스 신청에 익숙해지는 탑승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음편한 타요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전화예약, 청각장애인은 문자예약을 통해 각각 이용할 수 있다. 출발시간과 출발지, 도착지를 입력해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이 완료되면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시내 편도 이용료는 1천원이며 시외 5km까지는 1천원, 초과 시 km당 100원의 이용료가 추가된다. 기타 요금은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안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31-413-4421)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안산시 마을기업, 우리 동네 연구소 ‘퍼즐’

“마을 주민·자원·일자리 연계해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가꿔요”

2018년 11월 상록구 일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작은도서관 운영자, 상인회 상인 등 마을주민 10여 명이 모여 협동조합 우리동네연구소 ‘퍼즐’을 결성했다. 이들은 ‘마을에서의 신나는 삶’,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우리동네연구소 퍼즐은 2019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더욱 사명감이 커졌다는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운영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우리동네연구소 퍼즐의 조합원은 어떻게 구성했나?

맨 처음 10명이 모여 만든 퍼즐은 현재 70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다. 한 구좌 당 5만 원의 조합비를 출자하면 누구나 조합이 되어 조합 결정권을 갖고 함께 활동할 수 있다. 조합 구성원은 일동 주민이 70%이며 나머지는 타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다.

Q. 마을기업 퍼즐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

마을정원사 활동이다. 조합 설립 이전인 2016년, 마을에서 꾸준히 공동체 활동을 해오던 주민들이 더 나은 마을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곳에 오랫동안 거주하려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인터뷰와 설문으로 주민 3천명의 의견을 구했는데, 그때 나온 결론이 일동이 갖고 있는 자원을 살리는 일이었다. 안산을 대표하는 식물원을 마을 속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마을정원 만들기 활동을 2018년부터 시작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 가로수 밑 화단, 상점가 화분 정원 등을 가꾸면서 주민들은 정원사로서 역량을 키우고 성장했다.

또한 퍼즐은 사무 공간 대관과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 홀몸 돌봄 서비스, 집수리, 공구대여, 자원순환활동 등 다양한 일을 한다.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며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



Q. 퍼즐 운영의 어려운 점과 미래 비전을 그린다면?

기업이라는 조직에 익숙하지 않다보니깐 갈등이 일어난다.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또 지속 가능해야 하는 것이 기업인데 어떻게 수익창출을 지속해 이뤄나갈지 두려울 때가 가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을 기회로 삼아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이름이 퍼즐이 아닌가. 지금의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씩 풀어나가며 전국의 3천개 넘는 동네 좋은 선례가 되고자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형 사회적 주택 ‘소박하고 소중한 집 소소한家’ 지원 사업

케어안심주택 공급으로 홀몸어르신 주거복지 일조

안산시가 면적 30㎡ 이하의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하고 수리해 낮은 가격에 임대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나섰다.

사회적 협동조합 안산지역자활센터는 담보대출 70%, 사회적 경제 재원 25%, 임대보증금 5%로 1~2인용 소형아파트를 매입해 내부 수리 후 임대보증금 5백만 원과 1인당 월 주거급여 22만5천원 내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소소한 가(家) 지원 사업’을 벌인다.

소소한家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이 거주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설계를 적용해 아파트 내부 전체를 수리한다. 기동모서리와 화장실 변기에 안전 바를 설치하고,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았다. 욕실 세면대는 세면대 옆의 단추를 돌려서 간단하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했고, 방과 베란다 문턱을 제거해 기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수리비용은 안산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예산으로 지원됐다.

소소한家 지원 사업은 2019년 안산지역자활센터가 안산시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시작했다. 2019년 아파트 2채를 매입해 내부수리 한 뒤 올해 2월 입주자를 선정해 입주 계약을 체결, 1차 입주를 마쳤다. 5월에는 2차 아파트 2채를 매입하고 수리 후 입주자를 선정해 입주를 진행 중이다.

러시아 사할린 징용 2세대로서 한국인으로 귀화해



22년 만에 한국에 온 이화숙(74·월피동) 씨는 올해 2월 세 번째 입주자로 선정돼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씨는 “보증금 5백만 원의 임대아파트지만 내가 원하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으니 내 집과 다름없어 너무나 좋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2865)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빛하나봉사회, 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

꾸준한 기금 마련으로 어려운 이웃 도와

나눔을 실천하는 빛하나봉사회가 1년 간 꾸준히 관내 차상위 계층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빛하나봉사회는 매달 2만원의 회비를 모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부족한 부분은 특별회비와 후원금을 받거나 간장과 고추장 담그기 행사, 고향농산물품 팔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 판매 수익금을 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한다.

빛하나봉사회가 특별한 이유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라는 점이다. 봉사회는 연초에 관내 차상위 계

층 10여 명을 선정해 매달 5만원 상당의 주요 생활필수품을 꾸준히 전달했다. 특히 대상자가 원하는 생활필수품을 정해 최소 1년 동안 지원해준다는 것에서 만족도가 크다. 생필품은 각 가정에 매달 말일에 전달된다.

이와 함께 빛하나봉사회는 신길동에 500여 평 규모의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수확한 감자를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일부는 판매해 기금으로도 사용한다.

박보성 빛하나봉사회장은 “회원들의 아름다운 마음



이 차상위 계층에 전달되고 이들이 힘을 얻어 안산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대부도에서 즐기는 새콤달콤한 '와인의 향연', 그랑꼬또 와이너리

청정섬 대부도의 햇살로 길러낸 포도로 만든 와인을 마시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그랑꼬또 와이너리'다. 그랑꼬또는 '큰 언덕'이란 뜻의 프랑스어로 '대부(大阜)'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랑꼬또 와이너리에서 직접 만든 여러 종류의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와인 족욕과 양조장 견학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특히 나무로 만든 통에 와인을 채우고 발을 담그는 와인 족욕은 색다른 휴식을 맛 볼 수 있다.

대부도는 낮과 밤의 큰 일교차와 여름철 적은 강수량,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 해풍 등으로 포도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당도 높은 달콤한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비결이다. 대부도에서 난 포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여 1996년 설립한 그린영농조합은 2001년부터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2003년 첫 제품으로 '그랑꼬또'를 선보였다.

이곳에서는 '와인+체험', '체험', '투어' 등 크게 3가지로 나눈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와인+체험 프로그램'은 와인 1병을 구매하면 와인병 공예와 머그컵 체험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4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첫 번째 체험은 와인 테이스팅이다. 1인당 5천원의 요금으로 2가지 와인을 시음할 수 있다. 두 번째 체험은 와인 족욕이다. 입욕제를 넣어주는 일반 족욕과 달리 와인을 넣어 보드라운 감촉을 느낄 수 있다. 1인당 2만원으로 최대 7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족욕을 하는 동안 와인 또는 커피도 즐길 수 있다. 세 번째 체험은 와인 드로잉 아트 체험이다. 와인병 그림 그리기, 전구 만들기 등 와인병을 활용한 예술 체험이 이뤄진다. 1인당 6천원이며 10명의 단체 예약 시 20% 할인된다. 네 번째 체험은 머그컵 만들기 그림을 그리며 나만의 머그컵을 가질 수 있다. 요금은 1

인당 1만원이며, 10명 단체 예약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투어 프로그램에서는 견학 및 테이스팅 체험을 통해 양조장 견학과 와인 테이스팅(3가지)을 진행하며 스페셜 와인 강의에서는 양조장 견학과 와인 테이스팅(4가지)에 이어 와인 세미나(1시간)가 이뤄진다. 단체 예약만 가능하다.

김지원 그랑꼬또 와이너리 대표는 "대부도에서 3대째 포도 농사를 지어왔다. 국내외 와이너리를 돌아다니면서 기술을 익히고 와인 양조를 도맡아 왔다"며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역 기업으로서 대부도에서 생산한 포도로 좋은 품질의 와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안산시 단원구 뼈곡산길 107(대부북동)
문의 : 그랑꼬또와이너리(032-886-9873)
김영미 명예기자_flowerym@hanmail.net



와인 전시장



와인병 공예



와인 족욕

주민이 만드는 지역 여행, 안산에서 만나는 관광두레 시리즈 ①



‘관광두레’는 마을주민이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지닌 음식과 체험, 기념품, 레저, 숙박 등 관광 사업체를 창업해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개발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는 2019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현재 5개의 주민사업체가 창업에 나섰다. 안산 고유의 관광 아이템 개발에 나선 주민사업체 5곳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원곡동을 또 다른 아시아로 연결하는 안내자, '문화세상고리'

문화세상고리는 문화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교육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 '세계 문화와 우리 문화의 상호 이해를 돕는 연결고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모임이기도 한 이곳은 2014년 협동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로 7년째 안산 지역에서 다양한 다문화 교육 활동을 이끌고 있다. 이제는 안산지역의 자산인 다문화를 통해 지역의 이색 관광을 선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백승희 문화세상고리 대표는 "다문화 교육기관으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축제에 참여해 다문화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오며 기반을 닦았다. 관광두레와 함께 시스템을 갖추면 관광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문화세상고리는 '원곡동'이라는 다문화 대표 지역을 기반으로 관광객이 원하는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리틀 아시아'라는 타이틀

의 프로그램은 원곡동을 한 바퀴 돌며 아시아의 다양한 먹을거리를 비롯한 체험이 가능하다.

백 대표는 "문화세상고리가 기획자, 안내자가 되어 원곡동 곳곳에 숨은 이야기들을 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모든 관광 사업은 멈춰있는 상태다. 특히 문화세상고리는 학교 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이 다

수인데, 학생 이동과 참가가 불가한 상황이다.

백 대표는 "사업이 멈춰 있는 동안 관광 인프라를 공부하며 역량을 쌓고, 필요성이 강조되는 온라인 시스템을 준비하며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힘든 시기지만 모든 구성원과 함께 공동체의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곡동과 다문화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다문화 상권의 상생을 꿈꾸는 문화세상고리의 행보가 기대된다.

문의 : 문화세상고리(031-411-1150)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8월의 태양보다 뜨거운 광복의 기쁨

제75주년 광복절에 꼭 기억해야 하는 안산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

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이다. 올해 제75주년 광복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한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하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고자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사흘간 ‘광복절 황금연휴’도 이어진다.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동안 휴식을 즐기면서 우리 고장, 안산의 독립 운동가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평화 시위’를 주도한 독립운동가 유익수

유익수는 고종 7년인 1870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3.1운동 당시 시흥군 수암면 월피리(현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서 잡화상을 운영했다. 유익수는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1919년 3월30일 윤병소, 홍순철, 김병권, 이봉문, 윤동욱 등과 함께 수암면 비석거리에서 2천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읍내 면사무소와 주재소, 보통학교, 향교를 돌며 만세운동을 펼쳤다. 그는 다음날인 3월31일에도 반월면에서 열린 장날을 이용해 주민 600여명과 함께 반월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전날 일본경찰이 총으로 위협하며 해산을 요구할 때 흥분한 군중들을 염려해 ‘폭력 자제’를 호소한 유익수는 이곳에서의 시위가 과격해지자 ‘건물이나 기물은 우리 민족의 재산이므로 파괴하지 말자’고 외치면서 평화 시위를 주도했다. 또한 당시 시흥군 수암면 성포리(현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노적봉 정상에서 청년들에게 태극기를 만들게 하고, 사재를 털어 동지와 군중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결국 1919년 4월5일 자택에서 일본경찰에 체포된 유익수는 소위 보안법 위반과 소요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는 6년여 동안 병석에서 고생하다가 1926년에 사망했다. 유익수는 198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청문당 근처 유명현 선생 묘역에 후손 애국지사 유익수 선생의 묘가 있다.

‘태극기’를 나눠주며 안산지역 만세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 홍순철

홍순철은 고종 14년인 1877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태어났다. 대지주였던 그는 1919년 3월29일 시흥군 수암면 와리(현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태극기를 제작해 주민을 규합하는 일에 참여했다. 홍순철은 전국적으로 3.1만세운동이 촉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랑방에서 주변 사람들과 태극기 3천여개를 만들었다. 또 안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날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도록 19개 동리를 다니며 밤늦게까지 격문을 돌리는 등 선도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3월30일 비립동에는 2천여 명의 군중이 집결했고, 홍순철은 윤병소, 유익수, 김병권 등과 함께 대열 선두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는 일본 경찰의 해산명령과 엄포사격에도 굴하지 않고 몸싸움을 벌이며 항거하는 등 안산지역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홍순철은 경찰에 체포된 뒤 심문조사에서 ‘조선이 독립하면 지금보다 더욱 행복하게 될 것을 믿고 독립을 희망했기 때문에 시위운동에 참여해 함께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다’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시위 참여 이유와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같은 해 5월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소요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은 후 징역 6월로 감형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자택에서 13년 동안 고문후유증으로 병고에 시달리다 1932년 55세에 나이로 사망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견디지 못한 후손들이 고향을 떠난 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올림픽기념관 뒷산에 있던 선생의 묘소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와동 공동묘지에서 무연고자로 처리돼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됐다. 1992년에야 대통령 표창에 추서됐다. 그의 생가 근처의 와동체육공원에 후손들이 세운 기념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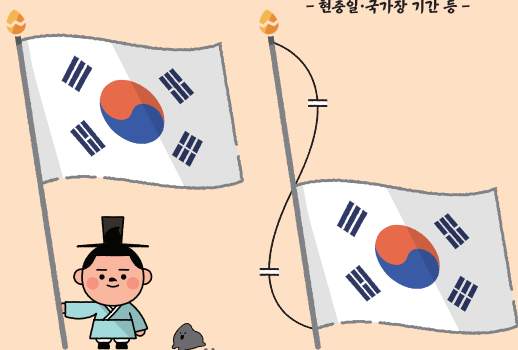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태극기 휘날리며’, 광복절 태극기 다는 방법

경축일 및 평일

조(弔)意를 표하는 날
-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



- ◇ 다가오는 8월15일, 온 가족이 모여 태극기를 게양하며 광복절 해방의 기쁨을 느껴보자. 한때는 소지하거나 만들기만 해도 일제의 탄압을 받았던 태극기는 지금은 누구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소중한 태극기를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한다.
- ◇ 국기를 다는 날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기념일인 현충일(조기),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이다. 광복절은 축하의 의미를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최대한 높이 달아야 한다. 태극기를 달 때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 ◇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주택일 경우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하며 차량은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달면 된다.
- ◇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원칙이나,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다만 겨울철(11월~2월)에는 오후 5시까지 달고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좋다.

안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완료’

박은경 신임의장 “지방자치 토대 굳건히 다지고, 코로나19 극복 위해 기민하게 대응” 다짐



박은경 신임 의장이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가 지난 7월6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위원 배정까지 마치면서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박은경 의원을 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윤석진 의원이 당선됐다. 의회운영위원장에는 김태희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김동수 의원을 선임했으며, 문화복지위원장과 도시환경위원장은 각각 이기환 의원과 박태순 의원을 뽑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장, 부의장과 4개 상임위원장 등 총 6번의 투표가 이뤄진 가

운데 당선자들은 모두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박은경 신임 의장은 1991년 안산시의회 개원 이래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의회를 이끄는 수장의 자리에 올라 그 의미를 더했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경우 김태희, 강광주, 김동수, 이기환, 박태순, 현옥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는 김동수, 윤태천, 한명훈, 현옥순, 유재수, 추연호, 정종길 의원으로 이뤄졌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이기환, 윤석진, 김태희, 김동규, 나정숙, 이경애, 이진분 의원이 배정됐으며, 박태순, 강광주, 김정택, 송바우나, 주미희, 김진숙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당선된 후 본회의를 주재한 박은경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위기에서 73만 안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면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 한분 한분의 뜻과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를 위해 시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과감히 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 또한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상생’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상생’이 지난 7월2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상생 소속 박태순, 김진숙, 주미희 의원과 용역수행업체 직원들을 비롯해 지역 유관 기관은 물론 시 관련 부서인 기업지원과 관계자들도 참석하면서 용역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용역업체 측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반월시화공단 내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의 경영 환경과 기업 활동 위축 요인 등을 분석,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을 포함한 지역 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용역업체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단 입주 기업체의 업종과 업체 수, 매출액, 경쟁력, 반월시화공단 이전 기업 수(현재, 예정) 등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용역과 관련해서는 조사 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할 것과 업종별 표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안산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도시와의 비교 분석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을 일회성이 아닌 다년 계획으로 추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태순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기간이 길지 않지만 반월시화공단 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사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반월·시화공단이 살아야 안산시가 산다! 상생

제8대 후반기 안산시의회 의장단, 지역 기관 방문

기관 측에 후반기 의정 방향 등 설명

제8대 후반기 안산시의회 의장단이 지역 각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 차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기관 방문에 나섰다.

박은경 의장과 윤석진 부의장,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강광주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 의장단 일행은 지난 7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총 10곳의 기관을 찾았다.

14일에는 안산시장실과 단원경찰서, 안산소방서, 안산교육청, 수원지법안산지원수원지검안산지청을, 15일에는 상록경찰서를 비롯해 안산문화원, 상록노인지회, 단원노인지회를 잇달아 방문한 의장단은 각 기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통과 연대를 기치로 한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기관 현황과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의장단은 적극적인 대민 활동을 위해서는 의회와 기관들 사이의 긴밀한 소통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박은경 의장은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 후반기 의회에 거는 지역 각계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의회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욱 낮은 자세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며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소방서 고잔 119안전센터 GOJAN FIRE HOUSE

시민기자가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생생마을기자단, 초·중·고·대학생으로 이뤄진 학생기자단, 특색있는 글솜씨를 가진 SNS시민기자단이 전하는 안산시의 생생한 소식. 안산시 시민기자단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제목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이 꿈꾸는 '건강도시' 어떻게 만들어질까?

건강도시란 건강하기 위한 개인의 선택이 어렵지 않고 접근이 쉬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건강을 위해 걷고 싶다면 인도의 상태가 걷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숲과 나무가 충분한 곳인지도 중요합니다. 사동은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석호로(대동서적부터 석호초등학교까지)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 정화영 마을기자



바다의 향기가 머무는 곳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2019년 5월에 개원한 바다향기수목원은 우리나라 서해안 식물을 중심으로 1천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스카이워크처럼 강화유리 밑으로 바닥이 보이고, 시화호와 대부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주차공간도 넓고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숲, 향기, 바다를 주제로 각기 다른 코스를 취향에 맞게 거닐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이금순 SNS시민기자



단원산책숲길 8경 신안산대학교 캠퍼스 길

초지동에 위치한 신안산대학교 내 산책로 코스는 약 3km입니다. '캠퍼스에서 삶의 활기를 되찾자'라는 주제가 있는 코스로, 세월 속에 빛바랜 젊은 날을 추억하며 잠시라도 그 시절로 돌아가 보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예쁜 꽃들, 청심호의 금붕어, 솔향기 가득한 소나무를 즐길 수 있는 산책길! 여름엔 한낮은 피하고 아침저녁 시원할 때 산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금순 SNS시민기자



커다란 보름달이 뜬다! 선부광장 불빛축제

선부역이 위치한 선부광장에서 열리는 불빛축제가 7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진행돼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쁜 꽃부터 동그란 보름달 빛 조명물, 그리고 빛 터널까지! 포토존에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선부광장의 넓은 잔디에서 돛자리를 펴고 간단하게 피크닉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 이예은 학생기자



해외입국자 많은 안산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철저하게!

안산시는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1:1 전담 공무원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수시로 현재위치 확인,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 영상통화 모니터링, 비대면 구호물품 전달 등을 진행합니다.

• 손현지 학생기자



영화·드라마 촬영 명소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무더운 여름, 집에서 시원하게 수박 먹으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는 게 최고죠! 안산 촬영 맛집,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를 소개합니다. 스무살 새내기들을 위한 청춘 영화 '스물', 요즘 핫한 배우 김수현이 출연하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 외에도 '호텔 델루나', '함부로 애틋하게' 등에서도 촬영장으로 활용됐는데요. 넓은 부지와 아름다운 건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장소입니다.

• 이예은 학생기자



상록구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율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동

코로나19 보건 취약계층 위해 마스크 3천매 후원



일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코로나19 보건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 3천매를 일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평소 관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꾸준히 돕고 있는 일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자, 지난 7월10일 관내 보건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이웃에 희망을 전해주는 봉사정신을 보여줬다.

김형숙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관내 저소득계층이 더욱 걱정된다”며 “이번에 마스크를 후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홍 일동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소중하게 전달한 마스크를 저소득계층에게 잘 분배해 보건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일동행정복지센터(031-481-5724)

본오3동

상록장학회, 관내 학생 17명에 730만원 장학금 전달



본오3동 상록장학회는 상록장학회원과 유관단체장 및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상반기 상록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6월29일 진행된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관내

학교장 및 장학회원으로부터 추천받아 실용음악, 태권도, 조형디자인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관내 초·중·고등학생 총 17명(초4명, 중4명, 고9명)이 730만원의 장학금과 증서를 전달받았다. 본오3동 상록장학회는 최용신 선생의 뜻과 얼을 계승하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996년 구성돼 지금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 846명에 2억9천6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위성숙 상록장학회장은 “오랜 기간 본오3동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인 만큼 각자의 꿈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상록장학회가 지역인재들의 꿈을 후원하

는 장학사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상 본오3동장은 “20년 넘게 이어온 전통 있는 상록장학회는 주민의 손으로 우리 마을 청소년들을 키워내는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관내 학생들의 꿈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상록장학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본오3동 상록장학회는 현재 37명의 개인회원과 10곳의 기관·단체 회원들이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뜻있는 기관 및 단체·주민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 본오3동행정복지센터(031-481-5727)

성포동

7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모기퇴치 집중방역



성포동새마을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모기 등 해충 퇴치를 위한 하절기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에 들어서며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자체 방역에 나선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의 위험성이 더해져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하수구 주변, 쓰레기처리장 등 취약지에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에 앞장서 주민의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영애 새마을부녀회장은 “코로나19로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폭염으로 모기 등 해충까지 심해지기 전 미리 방역을 실시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국 성포동장은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꾸준히 방역활동에 힘써주시는 새마을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역에 힘써 더욱 쾌적하고 행복한 성포동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성포동행정복지센터(031-481-5709)

물품 기부 또는 성금 모금에 관심이 있는 시민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 031-481-3190 | 저소득층 대상 | 안산시 복지정책과 031-481-3025 | 코로나19 관련·저소득층 대상 | 동 행정복지센터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신길동

‘너랑 나랑 우리랑’ 함께하는 나눔 행사



신길동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너랑 나랑 우리랑’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열어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떡과 화훼 나눔을 했다.

지난 7월16일 개최한 행사는 관내 단체(새마을부녀회, 안산지역아동센터, 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했다. 이날 단체에서는 떡 만들기 수업과 화훼 수업을 통해 직접 만든 떡과 화분 각 25개를 관내 복지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했다.

‘너랑 나랑 우리랑’ 함께하는 나눔 행사는 총 8번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이 첫 번째 행사다. 앞으로 남은 행사를 통해 105가구에 추가로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문세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이웃 주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나눔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오천 단원구청장은 나눔 행사에 참석해 “바쁜 일정에도 나눔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 단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눔과 베품으로 행복한 신길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단원구에서도 복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신길동행정복지센터(031-481-6643)

선부2동

땃골(고려인마을) 소개 안내판 설치



선부2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관내 땃골(고려인마을) 지역에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과 지역주민의 역사인식을 높이는 ‘마을 소개 안내판’을 설치했다. 새로 제작된 안내판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대회에서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됐다.

안내판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표기해 고려인과 지역 주민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고려인 소개와

정착 배경, 땃골 안내도 등을 넣었다.

이를 통해 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정주인식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배순철 선부2동장은 “지역주민들과 고려인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선부2동행정복지센터(031-481-6739)

대부동

우리동네 특별한 동네복지사



대부동행정복지센터는 노인 고독사 등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자 ‘찾아가는 동네복지사 사업’을 시작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대부동을 구현하고자 올해 5월

부터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 1명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동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천531명(2020년 6월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29.1%가 노인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 중 34.5%가 독거노인이다. 이처럼 대부동 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고 독거노인의 증가로 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곳이다.

찾아가는 동네복지사 사업에 참여중인 김영희 씨는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신청을 못하는 거동 불편자 및 시설수급자 등 128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혹서기 대비 안부전화,

연락두절 저소득층 방문 상담을 통해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확인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찾아오는 사람 없이 외롭게 생활하던 한 어르신은 찾아가는 동네복지사의 안부전화를 받고 “관심을 가져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울증과 알코올문제를 가진 한 주민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 힘이 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연창희 대부동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없는 살기 좋은 대부동을 만들고자 지역 내 복지 안전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대부동행정복지센터(481-6502)

7월의 따뜻한 나눔 소식

※ 지면상의 이유로 나눔 소식의 일부만 기재하였습니다.

상록구

이동 4개 단체, 취약계층 200가구에 삼계탕 직접 배달
부곡동새마을회, 어려운 이웃에 감자 10kg 70박스 나눔 및 수익금 후원
성포동새마을회, 어려운 이웃 50가구에 직접 담근 양파장아찌 나눔
안산동새마을회, 경로당 10개소에 사랑의 감자 10kg 120박스 전달

단원구

와동새마을회,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에 감자 10kg 50박스 전달
고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70분에 건강삼계탕 전달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몸어르신 50가구에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백운동새마을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감자 10kg 30박스 나눔
초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취약계층에 폭염 대비 선풍기 70대 전달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너의 땃줄을 자르며

아기 이름 : 심유민(여) 출생년월 : 2020년 6월 태명 : 단짠이

사랑하는 우리 딸 유민아, 병원에서 초음파를 통해 처음 너를 만난 그 순간을 아빠는 잊지 못할거야. 짹짹한 아빠와 달달한 엄마 사이의 단짠아, 단짠이라는 이름처럼 유민이가 엄마 뱃속에 생기면서 엄마랑 아빠는 유민이 덕분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소중한 짝이란 걸 알게 되었어.

2020년 6월 5일 엄마가 참 많이 아파하면서도 용감하게 유민이를 이 땅에 선물했지. 오후 4시 18분에 엄마 아빠의 모습을 골고루 가지고 아빠 앞에 나타난 유민이는 아빠가 상상하고 그려왔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웠어. 때로는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대로 남아 있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때로는 어서 빨리 커서 아빠한테 효도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드는구나. 아빠가 유민이와 함께 하는 사랑의 가정을 만들겠다고 약속 할게.

울고 있는 유민이를 달래고 있는 엄마 옆에서 유민이를 더욱 잘 알고 싶어하는 덩치값 못하는 초보 아빠가.

· 심석형(단원구 선부동)



감사를 가슴에 새긴 예찬이

아기 이름 : 김예찬(남) 출생년월 : 2019년 8월 태명 : 따복이

작년 여름, 뱃속에서 열 달을 함께한 따복이가 우렁찬 울음과 함께 우리 가정의 둘째가 되었습니다. 수술로 출산한 첫째와 달리 산고의 시간을 함께 해서 그런지 또 다른 감동과 기쁨이 가득했던 만남의 시간도 잠시,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 감기로 인한 열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심장에 제법 큰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함께 어른도 힘들 심장수술을 작은 몸으로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수술 후에 남는 가슴의 큰 흉터는 어떨지 아이를 안고 걱정과 미안함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걱정과 달리 예찬이는 수술과 회복의 과정을 잘 견뎌냈고 곧 돌을 앞두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찬이의 가슴 흉터를 볼 때마다 우리 가족은 항상 '감사'를 떠올립니다. 아픈 예찬이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함께 했기에 지금의 건강이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전 걱정이 되었던 가슴에 남은 흉터가 지금은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가슴에 새긴 또 다른 감사가 되었네요.

우리 예찬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게, 무엇보다 감사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며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길 소망합니다.

예찬아~ 너의 첫 생일을 축하해! 엄마, 아빠, 그리고 예하누나에게 너는 소중한 보물이라네! 사랑해!

· 김영옥(단원구 신길동)



책 읽는 안산 / 8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슬기로운 지구생활』

아동



바나나가 정말 없어진다고?

저자 김은의 / 출판사 풀과바람

누구나 아는 친근한 과일 바나나의 멸종 위기 이유를 여러모로 분석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열대 우림이 왜 사라졌는지, 바나나의 운명을 베풀 끝으로 내몬 파나마병은 무엇인지, 과정과 심각성, 문제 해결 방안까지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청소년



우리는 모두 그레타

저자 발렌티나 잔넬라 / 출판사 생각의힘

태양광 요트에 올라 대서양을 횡단한 열여섯 살의 환경 운동가이자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 그레타는 학교에 가는 대신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 자리를 잡았다. 기후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어른들에 항의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은 우리의 작지만 반짝거리는 행성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성인



기후변화의 심리학

저자 조지 마셜 / 출판사 갈마바람

기후변화 활동가인 조지 마셜은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파국을 초래할지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는 이미 충분하더라도 우리는 왜 기후변화에 무관심 한 건지, 기후변화가 초래할지 모를 재앙에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후 문제에 대해 행동에 나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일깨워준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독자 투고

잠시 쉬이 필요할 때

경마를 보면 눈의 양옆을 가리고 달리는 말을 볼 수 있다. ‘눈가면’ 또는 ‘차안대’라고 하는 것인데 차안대를 붙이면 말이 느끼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여러 말들이 달리는 경주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게 효과적일 수 있겠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딱한 마음도 들었다. 마치 운전을 할 때 사이드 미러나 백미러가 없는 차를 앞만 보고 운전하는 운전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앞만 보며 최대한 집중해서 추진해야 하는 일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도 주행 후 역에서 쉬어야 하는 것처럼 휴식과 쉬이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전 세계가 큰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있다. 경제적 침체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에 틀림없다. 최첨단을 위시하며 세계 각국이 기술발전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는 그만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요즘,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건 아닌지 몇 가지 생각이 든다. 첫째 ‘빨리, 더 높이, 더 편리하게’ 만을 외쳤던 세계의 기술은 오히려 건강과 의료 시스템을 등한시한 점이 노출되었다. 선진국이라고 하던 나라들도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있다. 최첨단 기술도 좋지만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재고와 점검이 필요하겠다. 둘째, 앞만



보며 달렸던 경마장의 말처럼 우리도 앞만 보며 브레이크 없는 삶의 전쟁을 해 왔던 건 아닐까? 이제는 내 가족과 주변의 이웃의 건강을 챙기며 모두가 건강함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지역의 문제는 지구촌 시대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살아야 하겠다.

우리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쉬’이야말로 우리를 최상의 모습으로 복원시켜주고, 매일 부딪치는 역경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해 주기 때문이다.

· 김셋별(단원구 신길동)



전문가 기고

금융피라미드 사기에 관하여

금융피라미드 사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액의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금융피라미드 사기는 얼마를 투자하면 단시간에 큰 이익금 또는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유혹으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면 1천만원을 투자하면 은행에서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경락 받은 후 되팔아서 50일 뒤에 원금과 30%의 수익금을 보태서 돌려준다는 식이다. 실제 처음 투자금에 대해서는 약속된 일자에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준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투자자는 고율의 수익이라는 달콤한 열매에 점차 중독된다. 이쯤 되면 친한 사람들에게 게도 자신의 돈벌이 경험을 무용담 삼아 들려주며 투자를 권유하는 지경에 이른다. 덩달아 ‘크게 투자해야 크게 벌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투자금액도 눈덩이처럼 커진다.

범죄자들이 투자자에게 약정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단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이다. 새로운 투자자들, 즉 희생양들은 무한히 늘어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터질 것이 터지는 것이다. 수년 전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이웃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 동네 전체에서 피해자가 수 십 명, 피해금액 합계액이 80억 원에 이르는 금융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정도 금융피라미드 사건은 극히 작은 사건에 속한다. 크기는 수천억 원 또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금융피라미드 사건도 가끔 터진다.

심지어는 한 나라를 내전으로 몰아넣은 금융피라미드 사기도 있었다. 1990년대 초중반 급격한 자본주의 물결을 맞은 알바니아 국민들은 리스크나 수익 등 기본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수익이라는 홍보만 믿고 금융피라미드 조직들에 집을 판돈, 소를 판돈 등 모든 재산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당시 알바니아 전체 인구 337만 명 중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융피라미드 조직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경 더 이상 새로운 투자

자의 유입이 불가능해지자 수많은 금융피라미드 회사들은 연쇄적으로 무너진다. 그 결과 금융피라미드 조직에 투자한 알바니아 국민 200여 만 명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만다. 더구나 당시 알바니아의 금융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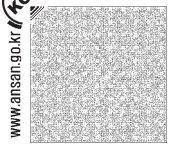


미드 회사는 모두 합법이었고, 정치지도자들은 그 회사들로부터 정치자금 수수하며 전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일을 방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피해자 중 70만 명 이상이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고, 그 시위는 은행과 상점들을 약탈하고 불태우는 내전사태로 치달아 무려 2천 여 명이 사망하기에 이른다.

설마 말도 안 되는 감언이설에 속아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 주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기 범죄자들이 제안하는 조건들은 얼핏 듣기에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가장 조심스러운 사람들조차도 이런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막상 금융피라미드 사기에 속아 큰 재산을 날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범죄자는 모든 수익금을 빼돌리거나 탕진한 이후이며 현실적으로 피해를 회복받기는 어렵다. 이때쯤이면 범죄자들은 잠적한다. 설사 체포되어 처벌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돈은 흔적도 없다.

이런 경우 형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들 스스로 금융피라미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인 셈이다. 큰 이익은 절대로 거저 생기지 않는다.

· 김성천 변호사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KBS (7월 2일)
우리 동네 어벤져스
안산시 행복마을관리소

한빛방송 (7월 2일)
안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

한빛방송 (7월 13일)
안산백년가게
국민이 추천하는 안경원

OBS (7월 16일)
수돗물 유출 발생 예방 위해
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2020 하반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

- ◇ **지원대상** : 2020. 7. 22.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내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
- ◇ **신청기간** : 2020. 7. 29. ~ 8. 4.
- ◇ **선발인원** : 91명 내외(일반 64명, 취약계층 27명)
- ◇ **근무기간** : 2020. 9. 1. ~ 12. 18.
- ◇ **근무시간** : 주 5일(주 20시간 또는 35시간)
- ◇ **근무장소** :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
-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안산시 홈페이지 '새소식')
- ◇ **신청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983)

성곡 반려견 놀이터 개장 알림

- ◇ **개 장 일** : 2020. 7. 28.
- ◇ **유의사항**
 - ① 코로나19 유증상자, 최근 2주간 해외 방문자 출입제한
 - ② 이용객 전원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필수
 - ③ 이용객 전원 출입자명부 작성
 - ④ 놀이터 내 거리두기가 불가할 경우 이용제한
 - ⑤ 방역강화 조치 시 재휴장 할 수 있음
- ◇ **주 소** : 단원구 성곡동 696번지
- ◇ **문 의** :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52)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다운샐' 참여농가 모집

- ◇ **지원대상** : 안산시 거주 및 관내 경작 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체
- ◇ **접수기간** : 2020. 7. 15. ~ 10. 26.
- ◇ **매장현황** : 안산 와~스타디움(약 500평)
2021년 3월 개장 예정
- ◇ **취급품목** : 관내 생산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222, 농업기술센터 3층)
- ◇ **신청문의** :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3392)

놀이혁신 선도사업 서비스 이용자 모집

-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 6세 ~ 12세 아동(240명)
- ◇ **신청기간** : 2020. 8. 3. ~ 8. 10.
- ◇ **이용기간** : 2020. 9. ~ 11.(3개월, 주 1회)
- ◇ **내 용** : 모듬형 단체 팝업놀이(주로 야외진행)
※ 팝업놀이란? 시간, 공간, 대상, 재료의 한계를 넘어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
- ◇ **부담비용** : 월 1만 8천원(정부지원금 약 16만원)
- ◇ **신청방법**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선착순 방문신청
- ◇ **신청문의** : 사회적협동조합 하다(031-492-9678)

8월의 독자 참여 퀴즈

〈안산특독〉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Q 올해 6월 연안정비사업을 마쳐 깨끗해진 0000해변. 평일·주말 관계없이 물놀이 안전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대부도 대표 해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구봉도 해변
- ② 방아머리 해변
- ③ 바다향기 해변



Q 75주년을 맞은 8월15일 광복절. 안산의 독립운동가 중 3.1운동 당시 수암면 비석거리에서 비폭력 만세운동을 펼친 인물은 누구일까요?

- ① 윤봉길 ② 유익수 ③ 유관순

퀴즈 응모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디지털 엽서로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아 제출해주세요. 응모자 중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무작위 추첨 후 개별 문자 발송 (3개월 이내 중복 당첨 불가)



응모기간 : 8월 25일까지 7월 호 정답 : ③, ①

정부,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8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합니다.
예) 4월20일 지급 시 7월19일까지 사용 가능
6월20일 지급 시 8월31일까지 사용 가능

도배·도장 기능인 육성사업 훈련생 모집

- ◇ **지원대상** : 40세 이상 남녀 구직자
※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60세대 우대선발
- ◇ **교육기간** : 2020. 8. 17. ~ 9. 25.(총 195시간)
- ◇ **교육시간** :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
- ◇ **교육내용** : 도배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대비
- ◇ **교육비용** : 전액 무료
- ◇ **혜 택** : 수료 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신청문의** :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031-439-2060)

유출발생 막기위해 안산시 정수장(안산·반월·연성) 긴급 점검 완료

안산시 수돗물, 상록수 안심하세요

2019년부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30년 지난 노후 수도로관을 전량교체하고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벌레배출기와 미세방충망을 설치하여 유충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